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 연구

이지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목차

- 1 서론
- 2 무의지적 기억으로서의 시 쓰기
 - 2.1 먹는 행위를 통한 타자와의 관계 형성
 - 2.2 걷는 행위를 통한 이방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
- 3 의지적 기억으로서의 시 쓰기
 - 3.1 진주 방언과 고향의 기억 표상
 - 3.2 타자의 언어와 기억의 흔적 찾기
- 4 기억과 애도의 시 쓰기
 - 4.1 ‘넝마주이’ 주체의 기억과 사랑의 방식
 - 4.2 기억의 무상성과 멜랑콜리적 주체
-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허수경의 시세계 전반에 걸친 ‘기억’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그 형상화 방식을 파악하고 의미화하는 데 있다. 허수경의 시는 뛰어난 시대 감각과 언어적 특질을 인정받으며, 1980년대 민중시와 여성시의 반열에 올라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허수경의 시는 초기에 선행된 연구성과에 치중되어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허수경의 시는 단선적으로만 읽을 수 없는 폭넓은 주제의식과 사유의 지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주제의식에서 ‘기억’을 통해 허수경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를 새로이 규명해보려 시도했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현재진행형의 개념으로, 허수경 시에서 기억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해체함으로써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었던 기억의 형상에 현재성을 부여한다. 기억의 표상은 시인의 가족으로 형상화되어 개인사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역사적 폭력에 희생된 존재들이나 무분별한 경제 논리에 휩쓸린 비인간 존재들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사회사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시인은 사회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기억의 표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우리 공동체 내부로 불러들인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억’을 허수경 시의 중요한 주제 의식으로 보고, 발터 벤야민의 기억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자를 향한 시적 주체들의 감정이입과 정서적 유대관계 역시 허수경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이라고 보고, ‘애도’의 측면에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허수경 시의 기억과 애도가 인간 중심적 그리고 주체 중심적인 사유 방식을 전복하며, 타자 윤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적 주체와 타자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여, 지금까지 모성애로 특징지어져 왔던 허수경 시의 사랑의 의미를 새로이 구획하려 한다.

2장에서는 시적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무의지적 기억’을, 3장에서는 시인이 의지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을, 4장에서는 기억과 망각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허수경 시의 ‘사랑’과 ‘슬픔’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타자들을 기억하고

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공동체 의식과 애도 의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2 무의지적 기억으로서의 시 쓰기

2.1 먹는 행위를 통한 타자와의 관계 형성

벤야민에 따르면 ‘무의지적 기억’은 기억의 주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것으로, 의식되지 못한 잠재적 기억이다. 따라서 기억보다는 망각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며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미메시스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잊혔다고 여겨졌던 기억들은 도리어 무한한 구성물로서 현재화된다.

허수경의 시에서 고향 진주에 대한 향수는 주로 음식을 통해 환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아기의 먹기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과 정서는 성인이 된 이후 의식되거나 기억될 가능성은 적지만, 주체의 심연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의지적인 기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을 망라한 그리움을 견디기 위해서 밥을 지어 먹었다던 허수경의 말¹은 그에게 있어 음식이 단순히 ‘식(食)’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시에서도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음식 섭취를 갈망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은 식탐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보다는 낯선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비통함의 표출로 드러난다. 허수경 시에서 음식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의 근원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 먹는다는 것은 생리적인 차원을 넘어 기억을 촉구하는 매개가 되며, 그때 당시의 행복했던 정서를 환기한다. 이런 측면에서 허수경 시의 먹는 행위는 타자와의 유대를 촉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²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 “늘 그리웠던 것 같아. 그 대상이 고국이든, 고향이든, 사람이든. 그래도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려고, 참고 또 참았어. 그리움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면 밥을 지어 먹었어.” (오은, 「나 없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겠지, 그리움 같은 눈이…」, 『한겨레』, 2018.12.09,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73605.html. (접속일: 2021.11.30.))

2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42-143쪽.

허수경 시에서 타자와의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할 때, 이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대상화된 존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은 허수경 시 전반에 걸쳐 제시되었던 먹기의 윤리성을, 다시 말해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서 망각해왔던 윤리성을 재고하게 한다. ‘음식화’ 과정이 인간사회에 있어 무의지적 기억으로 자리했다면, 음식의 대상이 된 존재들을 시를 통해 전면화하는 것은 ‘깨어남’의 순간으로 도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음식의 대상이 된 존재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허수경의 시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존재들이 우리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생명’임을 보여준다. 토끼³ 혹은 어린 양⁴과 같은 비인간 존재들은 시적 주체가 됨으로써, 대상화된 위치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기억을 지닌 주체로 목소리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식사의 자리는 잊힌 것들, 무의지적인 기억들로 치부된 것들을 다시 소환하는 행위로 확장된다. 음식과 소비의 대상으로만 사유되었던 비인간 존재들이 시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인간이 생을 영위하기 위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쉽게 잊어왔던 것들에 대한 성찰적인 시각을 제시해 준다.

2.2 걷는 행위를 통한 이방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

허수경의 시에서 목적의식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는 시적 주체들의 모습은 “기억의 의도성을 배제하는 ‘비의도적 기억’의 양식”⁵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가로이 도시를 거니는 시적 주체에게서는 이방인의 쓸쓸함도 드러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정서가 단순히 결핍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허수경의 걷는 주체는 주변화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타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된다. 따라서 걷는 주체는

3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81쪽.

4 허수경,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62-75쪽.

5 윤미애, 「도시, 기억, 산보」,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51호, 2003 겨울, 214쪽.

도심에서 은폐된 무의지적 기억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는 허수경의 시적 주체가 스스로 주변화된 위치에 존재하면서도 이에 순응하거나 유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수경의 견는 주체는 도시 속 인물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면밀한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다. 그의 시 「유령들」⁶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물에 빠져 죽는” 난민들의 상황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무의지적 기억으로 자리한다. 사회적 타자이기에 생전에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이들의 죽음은 사회에서 잊힌 기억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나 시적 주체는 이미 “죽은 사람들”로 여겨져 사회가 잊고 있거나 외면했던 기억들과 마주한다. 주체가 “죽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유령’으로서 주변화된 인물들의 관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타자를 우리와 먼 거리에 있다고 여기게 하면서 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부추긴다. 이러한 믿음 아래 우리들은 일상이 된 폭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주변화된 존재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허수경의 시는 소외된 이들을 일시적으로 회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담화와 정치적 문제로 포섭한다. 따라서 시인은 법적 권리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우리 공동체 내부로 불러들인다고 할 수 있다.

3 의지적 기억으로서의 시 쓰기

3.1 진주 방언과 고향의 기억 표상

허수경 시인은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진주 방언은 어린 시절 그가 습득한 언어로 ‘모어’⁷라 할 수 있다. 진주 방언은 4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서도 1부

6 허수경,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108-110쪽.

7 정끝별은 허수경의 1시집에 수록된 「땡벌」을 언급하며, 시인의 사투리가 곧 생래적인 언어로서의 위치를 지닌 모국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투리는 시인만이 간직한 특별한 언어적 표상을 넘어, 시적 주체를 비롯한 시의 등장인물들 모두가 지닌 ‘자신의 모국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끝별, 「古老를 좇는 마음의 歷史」, 『오늘의 문예비평』 통

의 제목으로 언급됐듯이, “진주 말로 혹은 내 말로”처럼 허수경 시인 본인의 언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인이 1시집을 제외하고서는 고향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은 진주 방언이 그의 모어이면서도 일상에서 아주 가까운 언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추한다. 즉 진주 방언은 고향 진주를 떠나 타지 생활을 하는 시인이 잊지 않고자 하는 의식의 연장선에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향인 ‘진주’와 시적 주체들의 언어인 ‘진주 방언’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만, 허수경의 시에서 이 둘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고향이 급속도로 변해가며 점차 근대화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근원적 장소라는 고유성을 잃게 되는 곳이라면, 진주 방언은 원본이 지니는 시공간에서의 유일한 현존성인 ‘아우라’⁸의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글로벌 블루스 2009」⁹에서는 “글로벌”화로 인해 아우라가 사라져 “건설”되고야 마는 고향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고향이라는 근원적 장소를 위협하는 세계화에 대한 비판으로만 읽을 수 없는 해석의 여지를 지닌다. 왜냐하면 “경계를 횡단하는 감각”¹⁰을 통해 고향의 지역적인 경계를 과연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국적’의 문제¹¹를 제기한다.

권 18호, 1995 가을, 122쪽.)

- 8 “아우라[Aura, 독특한 분위기]”는 “원작의 진품성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그것 자체이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진품성의 영역 전체는 “기술적 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복제의 가능성에서도 벗어나 있다.” 따라서 아우라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작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선집2), 길, 2007, 45-50쪽.)
- 9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30-31쪽.
- 10 이경수는 허수경이 독일에 거주한 세월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적 감각을 획득하기 시작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감각을 토대로 허수경의 시가 “자기 안의 경계를 넘으면서 국경을 비롯한 많은 경계를 넘게 되고 경계를 횡단하는 감각으로 예언적 목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이경수, 「한사코 달아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랑의 노래-허수경의 시」, 『사건들 2』, 파란, 2017.)
- 11 “조국이란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190쪽.)

시적 주체에 의해 “건설”되는 고향이 그저 우울의 산물이 아닌 “완벽한 내면”의 형상을 띠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국가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의 내면에 의해 “건설”된 고향이야말로 “완벽한 고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신지’가 가지고 있던 변경 불가능한 고정적 의미¹²를 해체함으로써 제시되는 횡단의 상상력은 내셔널한 경험에 규정되지 않는, 즉 난민적 삶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시인은 고향의 장소성을 해체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고향의 의미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허수경의 유년 시절 회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진주라는 고향의 장소성이 아니다. 고향을 회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모어인 진주 방언이다. 진주 방언은 곧 시인의 말하기에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명확한 시공간적 위치로 구획할 수도 없는 자유로운 언어라 할 수 있다. 몰락의 풍경을 내포하고 있던 고향은 유년의 언어이자 시인의 모어인 진주 방언을 통해 여전히 아우라를 간직한 따사로운 공간으로 새롭게 재건된다.

따라서 시인에게 귀향의 서사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귀향의 충동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은 퇴행에 대한 이끌림”¹³으로, 그 충동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고향이 기억 속의 그곳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났을 때 옛 고향의 모습과 시간마저도 내면화해 함께 떠났다는 허수경의 말¹⁴을 생각해보면, 시인에게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지점은 ‘비귀향의식’이라 보는 게 더욱 합당하게 느껴진다. 또한 귀향의 서사가 ‘퇴

12 “본래적 의미에서의 ‘고향’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출신지’ 개념이다. 이 출신지는 체류지나 거주지와는 달리 그 본질상 피동적 근원적 그리고 불변적 속성을 지닌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적어도 나에게 의해서 자율적 능동적으로 선택된 곳이 아니라 신적 내지 인간적 타자에 의해 나의 운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내 존재와 삶의 뿌리이고, 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광식, 『고향』, 문학과학지성사, 1999, 29쪽.)

13 서영채, 『풍경이 온다』, 나무나무, 2019, 283쪽.

14 “나는 아직 살아 있어서 옛 고향의 모습, 한두 가지는 지니고 있다. 아마도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함께 가지고 간 것이리라. 그렇게 장소도 장소를 떠난다. 장소를 내면화한 인간과 함께 그 인간의 시간과 함께.” (허수경, 『오늘의 착각』, 난다, 2020, 80쪽.)

행에 대한 이끌림'이라고 했을 때, 시인이 한국을 떠났던 이유로 시를 이루는 언어의 “새로운 형식”, 궁극적으로 “인간의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¹⁵였다고 말할 것을 상기해 보면, 허수경의 시는 귀향의 서사보다는 비귀향의 서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글로벌 블루스 2009」의 시어를 빌려, 허수경을 “자발적 유배”를 “선택”한 ‘비귀향적 주체’라 불러보고자 한다.

3.2 타자의 언어와 기억의 흔적 찾기

기억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다. 이는 우리가 기억의 주체로 위치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때 과거로 언어화된 기억은 경험으로 순치되어 사람이 기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¹⁶ 즉 사건은 언어화를 통해 과거형의 시제를 지닌 경험이 되면서 우리에게 기억된다. 그러나 기억을 언어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 기억이 폭력적 기억의 상흔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사건’의 기억을 공유해주길 바라는 절박한 요청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억의 공유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그를 뒤따른다. 가능하다 고 한다면, 문학의 경우 그 사건을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정교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일까? 이러한 의문은 기억이 온전히 재현될 수 없다는 문제에서 제기되는 균열을 보여준다.

전쟁피해자의 훼손된 신체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집중적으로 표상한 허수경의 초기시는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사건이 리얼리즘에 의해서 재현가능하다는 환상”¹⁷과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시편들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후 시에서는 기억의 재현 (불)가능성, 즉 외상적 기억

15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왜 떠났는지 사유하게 되더라. 그때는 잘 몰랐지. 나중에 곰곰 생각해보니, 인간의 형식이 바뀌어야 시에서도 새로운 형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더라고. 나한테는 그게 모국어로부터 한없이 낮설어지는 일이었고.” (오은, 앞의 글.)

16 오카 마리, 앞의 책, 54쪽.

17 위의 책, 72쪽.

의 ‘말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허수경의 시가 피해자의 침묵을 부추기거나 폭력의 협력자에 가담하는 무관심과는 다르게 나아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타자들의 기억의 흔적을 발굴하는 시인은 그들을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언제, 누구에게, 왜’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황과 언어를 통해 시를 형상화한다. 따라서 허수경 시에서 드러나는 기억의 재현 (불)가능성은 폭력적인 역사의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폭력의 주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부각함으로써 폭력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왔던, 그리고 끝내 ‘피해자’로서만 타자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거리를 유지해왔던 또 다른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허수경 시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역사적 타자들이 겪어왔던 폭력에 대한 시적 주체의 공감 어린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¹⁸은 역사에서 소거된 타자들의 기억을 언어의 진술이 아닌 울음을 통해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단순히 침묵을 유일한 증언으로 여기는 무관심적인 접근과는 차이를 지닌다. 허수경 시의 재현 (불)가능성은 역사적 타자들의 자리를 ‘나’와 거리를 유지한 채 고정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정적 교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허수경의 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했던 폭력의 길고 긴 세월을 오히려 폭력의 가담자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하는 방식으로 시사한다. 허수경의 시는 잊혀왔던 타자들의 언어화할 수 없는 폭력적인 기억을 인위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말할 수 없음’ 자체로 표상되는 흔적들을 통해 기억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의 재현 방식은 역사적 폭력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역사적 타자들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4 기억과 애도의 시 쓰기

4.1 ‘넝마주이’ 주체의 기억과 사랑의 방식

기억에 있어 망각은 필연적인 것으로 기억의 사라짐과 변형은 불가피하다. 망각

18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132-133쪽.

의 세계를 인식한 시인은 ‘누구든 잊혀진다’는 무상한 기억의 명제에 무력감을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허수경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가져다 두고 어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일”¹⁹이라고 밝힌 것처럼, 기억하고자 하는 그의 시적 자아는 고초를 감내하는 희생자의 느낌을 자아낸다. 잊혀가는 존재를 기억하고자 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허수경 시에서 드러나는 희생과 사랑은 ‘모성애적 포용’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타자를 보듬어 안는 강인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현신은 이와 같은 해석을 수긍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허수경 시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모성애’ 혹은 ‘주모적 사랑’²⁰이라 일컫는 선행 연구의 접근법은 그의 시가 내포하고 있는 확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²¹ 또한 현신적 여성이라는 젠더 이미지에 입각한 전통적인 여성 화자라는 기존의 분석들은 허수경의 시를 다소 안일한 태도로 도식화하여 수용해왔던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허수경의 사랑을 희생하고 돌보는 여성/어머니의 이상적 모델로 형상화함으로써 별다른 고찰 없이 그대로 투영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여성에게 당연하게 부과되어왔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이 이어져 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에서 드러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명명이 가능하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를 ‘넝마주이의 사랑’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넝마주이’는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길가에 버려진 폐품들을 주우며 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다. 허수

19 허수경,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151쪽.

20 ‘주모적 사랑’이라는 명명은 첫 시집인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에 수록된 송기원의 해설에서 연유한다. (송기원, 「저주와 은총의 사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개정판), 실천문학사, 2010[1988], 152쪽.)

21 이러한 지점은 이혜원과 이경수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서정시학』 통권 76호, 2017 겨울, 12-28쪽;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경의 시적 주체들 역시 가장 소외된 위치에서 타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점에서 녀마주의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기억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녀마주이에게 있어 소외된 타자, 즉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된 ‘폐품’들은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오히려 폐품은 녀마주이의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폐품을 모으는 녀마주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숙하거나 순진한 존재도 아니다. 그는 지저분하기도 하며 초라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도심의 바깥에서 마주하는 ‘하찮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내 존재의 정당함을 부여하는 자이다. 즉 녀마주이는 중심부가 아닐지라도 주변부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체인 것이다. 또한 폐품이 ‘못 쓰게 되어 버린 것’이라 할 때, 이는 사용을 하던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그렇기에 폐품을 수집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이며, 동시에 폐품이 되어 버린 타자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시인으로서의 허수경에게 있어 사회적 타자들이 그의 시적 감각의 원천이자 주제 의식으로서 중요하게 자리잡혀 있다는 의미이면서도, 그들이 허수경에게 있어 자신과 별다를 바 없는 동등한 위치를 지닌 독립된 주체들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허수경의 사랑이 헌신적인 (모성의) 돌봄 주체와 변별되는 지점은 그가 이상화된 희생자로만 위치하지 않으며, 사회적 타자들 역시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타자들을 굽어보는 이성적 위치가 아닌, 현실의 그리고 정서의 차원에서 그들과 같은 ‘이방인’이자 ‘녀마주이’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존재들은 부수적인물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허수경의 시는 현실에서 거둬 좌절되

22 벤야민에게 있어 폐품을 모으는 녀마주이의 수집력은 쓰레기터미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골동품을 모으는 수집가와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모으는 폐품이나 쓰레기, 골동품은 사회적 교환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쓸모 없는 대상에 유희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들은 사물의 쓸모와 관계없이 사물을 둘러싼 기억을 모으는 존재로 변이된다.” (최성만, 「벤야민 횡단하기Ⅳ-벤야민의 개념들」, 『문화과학』 제49호, 문화과학사, 2007, 247쪽.)

있던 희망을 사회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수경의 시가 진정한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에게 있어 ‘너’는 단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체성을 부여받는다. 이견 ‘너’와 마주 보는 ‘나’도 마찬가지이다. 인간과 비인간 주체를 가로지르는 수평화된 시선에서 공존의 윤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시인은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던 존재들을 ‘너’라는 2인칭으로 지칭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공동체 내부로 불러들인다.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한 허수경의 사랑은 수많은 경계를 무화하며 ‘너’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드러낸다. 단지 ‘있음’으로 존재의 권리를 증명하는 수많은 ‘너’에게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애뜻함을 느낀다. 따라서 자체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허수경 시의 사랑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4.2 기억의 무상성과 멜랑콜리적 주체

기억이란 기억하던 그 자체의 순간에 닿을 수 없다는 점에서 슬픔을 자아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허수경의 시적 자아 역시 그런 점에서 멜랑콜리적인 면모를 보인다. 유한한 존재의 숙명을 이미 알고 있는 시인에게 있어 타자와의 만남은 이별을 예보하기에 슬픔을 자아낸다. 멜랑콜리적 주체를 ‘슬픔을 통해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²³로 파악한 벤야민의 논의는 허수경 시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들은 슬픔이 가져다주는 상실감에 무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의 심연을 응시함으로써 잊혀가는 기억들을 붙잡고자 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낸다. 기억함으로써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23 벤야민에 따르면 “하늘 아래에서 진지하게 자기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 “멜랑콜리적 침잠의 본질이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김유동 역, 『독일 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2009, 349쪽.)

허수경의 시에서 시간의 흐름에 잊힌 대상들을 기억하려는 태도는 ‘노래’를 통해 형상화되기도 하는데,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시적 주체들의 모습은 애도 의식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사라진 존재들에 대한 슬픔은 어려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기쁨과 따뜻함을 발견하려는 시인의 태도는 이별 앞에서도 안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죽음은 누구에게든 비껴갈 수 없는 하나의 예견된 진실이다. 그러나 허수경의 시적 주체는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태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허수경 시에서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체의 모습은 죽음을 예찬하거나 초월적 세계를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물리적 죽음의 부정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시적 주체는 죽음을 삶의 필연적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애도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떠나간 이를 기억하는 행위는 곧 슬픔이 만연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한다. 육체의 사라짐은 존재 그 자체의 사라짐과 같지 않다. 허수경의 시적 주체는 기억을 통한 존재의 지속가능성, 즉 육체의 사라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억의 시간에 믿음을 보인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적 주체는 죽음을 정당히 기억함으로써 애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허수경이 기억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의 타자라는 점에 주목해, 벤야민의 무의지적 기억과 연관 지어 분석했다. 벤야민에 따르면, 무의지적 기억이란 기억의 주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기억으로, 주체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억이다. 허수경 시에 있어 무의지적 기억은 개인사적이면서도 집단적, 역사적 기억으로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잊혀가는 존재들의 기억을 복원하고자 하는 허수경의 시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처럼 우리 삶에 내재된 폭력의 순간들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허수경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에 의해 결국 퇴색되고야 마는 것들을 의지적인 시 쓰기를 통해 다시 복원하고자 한다. 이때 시인은 기억의 재현 가능성을 ‘언

어'에서 찾는다. 허수경의 시는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개성적 '모어'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따라서 타자들의 언어가 본연의 고유성을 지닌 아우라를 지니고 있으며, 시적 주체의 언어적 발화 행위를 통해 망각되는 기억들을 의지적으로 복원한다고 보았다. 즉 아우라적 성격을 가진 언어를 통해 무의지적 기억으로 잊혀왔던 타자들을 다시 우리 사회의 표면 위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에 주목해 시인의 말인 진주 방언과 타자들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허수경이 표상하고자 하는 기억의 존재들은 인간적 주체와 비인간 주체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허수경의 기억 복원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타자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들며 그들을 공동체 내부, 사회적 담론으로 불러들인다. 허수경의 기억 복원에 있어 타자성의 윤리와 공동체 의식은 정치하게 드러난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타자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는 사랑과 더불어 애도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허수경 시의 ‘사랑’을 ‘넝마주이적 사랑’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타자를 향한 윤리와 슬픔을 통해 허수경 시의 기억 형상화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허수경,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실천문학사, 2010[1988].
- _____, 『혼자 가는 먼 집』, 문학과지성사, 1992.
- _____,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 _____,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지성사, 2005.
- _____,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 _____,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 _____,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난다, 2018. (『모래도시를 찾아서』(현대문학, 2005)의 개정판)
- _____, 『오늘의 착각』, 난다, 2020.

단행본

서영채, 『풍경이 온다』, 나무나무, 2019.

이경수, 「한사코 달아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사랑의 노래-허수경의 시」, 『사건들 2』, 파란, 2017.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선집 2), 길, 2007.

_____, 최성만·김유동 역, 『독일 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2009.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논문

윤미애, 「도시, 기억, 산보」,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51호, 2003 겨울, 209-225쪽.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최승자, 김혜순, 허수경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8쪽.

이혜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 『서정시학』 통권 76호, 2017 겨울, 12-28쪽.

정끝별, 「古老를 좇는 마음의 歷史」,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8호, 1995 가을, 121-139쪽.

최성만, 「벤야민 횡단하기Ⅳ-벤야민의 개념들」, 『문화과학』 제49호, 문화과학사, 2007, 237-259쪽.

기타자료

오은, 「나 없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겠지, 그리움 같은 눈이…」, 『한겨레』, 2018. 12.09,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73605.html. (접속일: 2021.11.30.)